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27, 2022 Vol. 799

클레어몬트신대원, 재정난에 캠퍼스 매각 위기

LA고등법원, 지역 고등교육기관 컨소시엄에 매각 명령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전경.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재정난으로 합병에 나섰던 연합감리교회 소속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이 최근 법원에게서 지역 고등교육기관 컨소시엄에 캠퍼스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LA고등법원은 이달 초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은 지역 학교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대학(Claremont Colleges, Inc)에 캠퍼스 구매를 제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ST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항소를 고려 중이며, 학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ST 회장인 제프리 콴(Jeffrey Kuan) 목사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및 장래 들어올 학생들이 CST에서 자신이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CST가 현재 자산으로 계속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안정성과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클레어몬트 대학과 성실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ST는 지난 2015년 재정난으로 인해, 감리교 선교부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오리건주 세일럼의 윌라멧대학교와 합병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클레어몬트대학은 1957년 계약을 인용해, 자신들이 CST 부동산을 인수할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으며 CST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클레어몬트대학은 클레어몬트대학원, 클레어몬트맥켄나대학, 하비머드대학, 케크대학원연구소, 화이자대학, 포모나대학, 스크립대학 등 7개 회원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컨소시움은 성명에서 "CST는 1957년 클레어몬트에서 운영을 위해, 협상된 가격으로 TCC에게서 토지를 구매했다. 당사자들 간의 원칙적인 합의에 따라, CST가 만약 부동산 매각 또는 양도를 원하거나 클레어몬트를 떠나고자 할 경우, 합의된 가격에 재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ST는 1957년 환매권에 동의했으며, 그 권리는 1957년 계약에 문서화돼 있다. 그 이후로 이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돼 왔다"고 했다.

컨소시엄은 새로운 학생 숙소, 교실 공간 추가 등 자산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북한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국' 2위...1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영향으로 박해지수 1위

전 세계 국가들의 박해와 차별 정도를 기록한 '월드 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고통받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작년보다 약 2천만 명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꼴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다.

또 전 세계 박해지수에서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기록, 20년간 1위를 유지했던 북한을 넘어섰다. 북한 역시 2위를 기록했을 뿐 박해지수는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19일 정오 CGNTV 1층 비전홀에서 '2022 세계 기독교 박해보고서(World Watch List, WWL)를 발표했다. 올해로 29년째를 맞는 이 조사 결과는 19일 오후 1시 전 세계 동시에 공개됐다.

29년 전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래, 이번에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지수를 기록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2018년 2억 1천여 명에서 4년 만에 무려 1억 5천만 명 늘어났다.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은 작년 4,761명에서 5,898명으로, 물리적 공격을 받은 교회 수도 4,488건에서 5,110명으로 늘었다. 구금되거나 체포된 수는 6,175명으로 44%가 증가했다.

박해지수 98점으로 올해 처음 1위에 오른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함락되면서 현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난민이 되거나 죽음의 현실에 직면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부 장악은 정체됐던 지하디스트(Jihadist) 조직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지하디스트 세력 확장에 따른 '나이지리아의 탈레반화'로 인해 총 4,650명의 기독교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죽임당했다. 이는 전 세계 희생자의 약 79%에 해당된다.

오픈도어는 지하디즘의 확산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기독교 인구는 거의 사라졌으며,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극단주의 이슬람의 폭력(사헬지역 주변국), 강제 징집(에리트리아, 6위), 정부 탄압(이란, 9위), 내전(수단, 13위), 신앙으로 인한 가족의 박해를 피해 난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요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 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프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2022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정회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 혜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수여
▪한국어, English, 중국어, Spanish Track 운영중
▪LA Extension (317 W. Palmer Ave., Glendale)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학비보조(FSA), Pell & Cal Grant수여
▪대면, Zoom Sync, 통신으로 강의 수강 가능
▪학사 학위부터 석사학위 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박사과정은 50%)
▪HD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강의 제공

릴리재단 백만불 그랜트 수령
Grace Mission University는 Lilly Endowment Inc.로부터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 (내일을 향한 첩경 이니셔티브) 2차에 선정되어 지난 12월에 $1,000,000의 Grant를 받았습니다.
GMU는 이 Grant로 21세기 신학 교육을 받은 미래의 목회자를 제공하는 신학대학원이 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음 4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릴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미래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개선 프로젝트
(2) 다문화/다인종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3)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디지털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
(4) IT & 미디아에 능숙한 미래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릴리 인다우먼트는 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1937년에 J.K.릴리 시니어와 그의 아들 엘리와 J.K. 릴리 Jr.가 제약회사인 Eli Lilly & Company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세운 사설 자선재단입니다.

Tel : 714-525-0088(대표) 입학문의 email :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아즈텍 신 찬양’ 공교육 논란…교육부 ‘기도’ 삭제 결정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민족학 교과 과정에서 아즈텍 신에게 바치는 두 개의 종교적 성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주 교육위원회는 주가 승인한 민족학 모델 커리큘럼에서 기도문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캘리포니아평등권재단(Californians for Equal Rights Foundation)’의 프랭크 수 회장은 교육부의 삭제 결정이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수는 성명을 통해 “이 중요하고 힘든 승리에 용기를 얻었다”면서 “우리 주는 기존의 헌법 원칙을 무시하며, 변두리 이념과 인종간 불평을 조장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도를 넘어섰다. 주 교과 과정에서 종교적 성가를 승인한 것이 눈에 띄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공립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우대 프로그램과 인종적 전리품에 대항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정한 교육에 대사 집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보수 법률 고문단체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아즈텍 신을 찬양하는 기도문 철회를 요구하며, 학부모, 개인 납세자 및 단체들을 대신해 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과 과정에는 5명의 아즈텍 신을 부르는 ‘인 락 아크 확언문(In Lak Ech Affirmation)’을 포함한 확언, 구호, 정신적 각성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확언문은 표기와는 달리, 전통적인 칭호를 사용해 아즈텍 신들을 불러 들였으며, 능력과 지식의 원천으로 여기는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감사를 표하는 종교 행위에 가까웠다.

이 단체의 특별 자문역인 폴 조나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악마적 세력으로부터 축복과 중재를 받는 아즈텍 기도는 시나 역사로도 교육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즈텍인들은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 소름끼치는 끔찍한 만행을 꾸준히 저질렀다”면서 “인간의 심장을 도려내고 희생자의 가죽을 벗기는 인신공양은 전쟁 포로들의 희생과 함께, 아즈텍인들이 그들의 신을 기리기 위해 저지른 혐오스러운 행위이자 의식이며, 역사적인 문제”라며 내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교육위원회(ESMC)는 “교육자를 위한 민족한 연구 모델을 주 전역에 제공하는 첫번째 주”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소사이어티측은 주 정부가 논란이 되는 기도문은 삭제했지만, 교과 과정은 여전히 “인종에 기반한 시각과 지배자-피지배자라는 이분법에 기초한 비판적인 종이론(CRT)과 비판적 교육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과 과정에는 아프리카 토착 신앙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 제도 기원의 종교인 ‘산테리아(santeria)’와, 정령 및 주술을 숭배하는 종교인 아이티의 ‘부두교(voodoo)’ 등 이교도의 뿌리가 되는 개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커리큘럼 공동의장인 톨테카 쿠아우틴이 개발한 민족학 수업 자료에는 기독교인, 특히 유럽 혈통의 백인 기독교인을 타도해야 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그가 개발한 표에서 백인 기독교인은 토착 원주민들의 신을 학살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대체시킨 죄를 저지른 인물들로 묘사된다.

이에 대해 미국 탐사보도 기자인 크리스토퍼 루포는 작년 3월 ‘시티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쿠아우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백인에 대한 보복학살(counter-genocide)을 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GMU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세금 면제 신청 무료 강의

오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엘에이 확장강의실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은 오는 1월 28일(금) 오전 10시, GMU 엘에이 확장강의실 (317 W. Palmer Ave., Glendale, CA 91204)에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PO) 설립과 세금 면제 등 비영리 단체 운영과 관련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는 공개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공개 강의는 주요 강의 내용은 △ 비영리 단체의 의미와 혜택 △비영리 단체의 종류 △비영리 단체의 설립절차와 신청 △IRS 및 California Tax Exempt 신청 △질문과 응답 등이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비영리 단체 설립 및 IRS 와 주정부로부터 Tax Exempt 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해 무료 강의를 준비했다”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원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즈니스 선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무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로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매년 2-3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에 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하였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자료는 이메일로 무료로 제공 된다. 강의 현장 참석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문의: 714-525-0088 (Ext 101)

김동욱 기자

한인 종교지도자 및 커뮤니티 리더 대상 “정부지원 무료 가정폭력 전문가 교육”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가 한인 종교지도자 및 커뮤니티 리더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 교육과정은 오는 1월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주간 온라인 줌을 통해서 실시한다.

본 교육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40시간 교육과정을 마치면 과정 이수 수료증을 발급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 청소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지원,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안전대책 ,법률지원 등이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종교지도자 및 커뮤니티 리더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본 교육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과 한인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jwoo@kfamla.org

김동욱 기자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목회관 '유동성' 증가

뉴노멀 미니스트리 데이터 센터, 미주 목회자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뉴노멀 미니스트리 데이터 센터 ⓒ페이스북

뉴노멀 미니스트리 데이터 센터가 2021년 11월 한달 동안 103명의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목회관이 이전보다 유동적인 입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이직'에 대해 56.6%가 "담임목사나 부목사나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답하며 목회 사역지 이동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밝혔다. 그에 반해 "목사는 최대한 한곳에 오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목회 사례금이 적을 경우에 대해서 "이중직을 한다"는 대답이 58.2%로 '목사는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을 크게 앞질렀다.

또 데이팅 앱에 대해서도 49.5%가 "건전한 앱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 21.6%가 "친구로 사귀는 것 까지 좋으나 그 이상은 지양해야 한다"로 밝혀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기독교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은 8.2%에 그쳤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68.1%가 "건전한 투자는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은 8.5% 뿐이었다.

뉴노멀 미니스트리 데이터 센터의 최순환 이사장은 "세상의 트렌드를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차세대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노멀 미니스트리 데이터 센터의 하기쁨 대표는 "사역자들끼리 비밀리에 주고 받았던 이야기들이 데이터로 나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미주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에 출범한 뉴노멀 미니스트리 데이터 센터는 뉴 처치 산하 연구기관으로 대표는 하기쁨 전도사(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이사장은 최순환 목사(New Church)이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30-40대가 44%, 40-50대가 29%, 20-30대가 14%로 50-60대가 9%, 그밖의 연령대가 4%로 였다. 응답자의 교단으로는 장로교 54%, 침례교 1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93%가 모태 신앙 또는 10년 이상 신앙 생활을 지속한 사람들이었다.

김동욱 기자

ITS 신대원 한국어 온라인 신학과정 입학생 모집

릴리재단에서 100만 달러 지원받아… 100% 온라인 수업에 장학금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ITS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사설 자선기관인 릴리재단(Lily Endowment INC.)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 미국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원이 한국어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되는 다양한 신학 학위 과정들의 입학생을 모집한다.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현재 한국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선교학 석사(M.A.), 목회학 석사(M.Div), 신학 석사(Th.M.), 목회학 박사(D.Min)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100%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온라인 과정 입학생들의 경우 25%의 장학금을 제공하며, 2019년 9월 새롭게 개설된 한국어 온라인 오순절 신학 과정의 경우 오순절 교단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지원할 경우 50%까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TS 신학대학원은 하버드와 예일 등 미국 유수 신학대학원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 연방 인가기관인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및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목회자 안수와 교역자 선발 시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19년 ITS 신학대학원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릴리재단은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신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기독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 단계 지원 계획을 고안했다. ITS는 Pathway의 두 번째 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총 8,2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받는 84개 신학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대웅 기자

미주 낮은울타리, '어린이회복학교, 틴가스펠코스' 로 다음 세대 세운다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간사 조희창 목사)가 다음세대를 위해 어린이 회복사역인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회복학교(KIDZ HMMS) 2기〉와 청소년을 위한 〈틴가스펠코스(Teen Gospel Course) 1기〉를 개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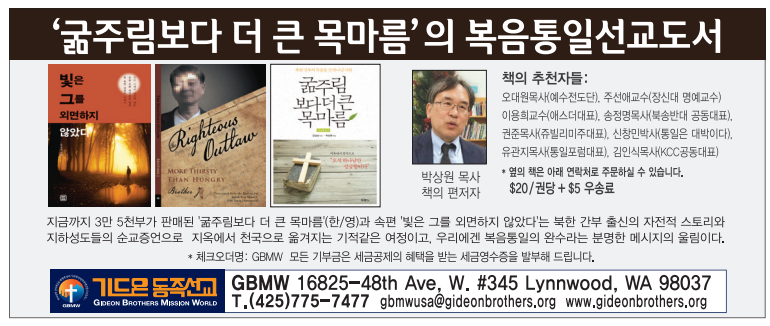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하는 어린이 회복학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월 24일 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미주동부시간)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다. 등록비는 60달러.

틴 가스펠코스(Teen Gospel Course)는 1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미주동부시간)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다. 영어권 사역자의 인도로 영어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60달러다.

키즈사역, 틴즈사역모두 화상앱 Zoom으로 미국 전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646-300-4790

김동욱 기자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39

"미주 장신대 선교학 박사(Ph. D.) 과정 새학기를 맞아서"

이 상 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필자는 선교사로, 그리고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선교에 대한 깊은 학구열과 사명감이 생겼다. 그리고 선교신학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공부를 위하여 미주 장신대(이상명 총장)에서 시작한 선교학 박사 과정을 참여하였다. 3학기째 듣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학문을 배웠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이번 학기 강의는 '선교신학'이라는 용어와 이론을 만들고 집대성한 챨스 밴 엥겐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멕시코 치아파스의 선교사 부부에게서 1947년 탄생한 엥겐 교수님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필자는 물론 27명의 함께 수학하는 각 열방의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큰 공감과 감명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매 학기 마다 선교신학과 선교 인류학 분야에서 큰 학문적 업적을 이루신 현존하는 신학석학들이 교수로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에 감사한다. 우리 한인 교수들도 이미 자신의 이론을 세워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귀한 분들이 많다. 그들의 열정과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자 하는 사명감이 매 학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이는 엄청난 선교 부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선교의 리더십들이 이 귀한 선교신학을 현장에 정립하여 자신들의 선교지에 선교학을 펼치게 될 때의 막강한 선교 부흥을 기대할 때면 내겐 큰 영적 전율이 느껴진다. 언젠가 '선교신학'에 대한 주제로 독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는 이 학문의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된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서 매우 큰 도전과 '하나님의 선교(misio dei)'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팬더믹을 이기며 부흥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지금 박사 과정은 줌 동영상으로 진행하기에 열방의 선교사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 미주, 일본, 한국, 필리핀, 캄보디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인도, 브라질, 그리고 유럽 등에서 참여하는 선교사들의 각 선교지의 현황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 그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로에게 선교신학에 대한 학문적 도전을 준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각자의 사역지에서 성경학교나 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 최고의 전문인 선교사로서 자기 사역의 영역을 인정 받고 있는 훌륭한 선교사들이다. 그분들이 품어내는 그들의 논문 스터디를 통해서도 큰 영감을 얻는다. 수업 시간에 서로의 견해 발표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많다. 필자도 그들이 전하는 리포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학습을 한다. 사역에 도입하고 싶은 귀한 아이디어도 많이 배웠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한편으로 시간을 내고 재정을 써야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이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과정의 공부가 우리들 사역과 세계 선교 부흥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애쓰고 있는 선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존경하는 뱅겐 교수님이 선교신학 작업을 수행하는 다섯 주체를 항시 기억하면서 사역하라고 하셨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교회,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의 현지인들"이다. 나는 그 기본을 항상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박광철 목사의 영성 계발

모세를 통해서 보는 영적 리더십(2)

박 광 철 목사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8) 겸손한 사람이다 (6:30) : 그는 스스로 입이 둔한 자라고 고백했다. 그는 애굽에서 학문과 무술을 충분히 터득한 사람이다 (행 7: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국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부르심을 사양했다. 그러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교만한 지도자는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9)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7:1, 8, 14).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를 가졌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 그것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다. 성경은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한다.

10) 순종하는 사람이다 (12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에 발랐고 할례를 거행했다. 믿음과 가장 가까운 말은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순종한다.

11)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하다 (14:13):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외쳤다. 백성이 홍해 앞에 와서 길이 막혀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모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이다. 영적 지도자는 강력하고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12)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에 쓰임을 받는다 (14:21, 17:6):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을 받은 것이다.

1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5장):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라고 말한다. 영적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허물은 스스로 감당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14) 위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15:25, 17:4): 그는 누가 자기를 도울 자인지 알았다. 백성이 여행 중에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불평을 쏟아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시 121:2).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한다.

15) 백성의 도전을 받기도 한다 (16:20):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지는 못한다. 만나를 먹을 때에는 모두 기뻐했지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만나를 간직해 두었던 사람들은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기자 또 모세를 원망한다.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종종 지도자에게 탓을 돌린다. 영적 리더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16) 하나님의 날을 중히 여긴다 (출16:23) : 안식일(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그들은 고단한 광야 길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킨다. 예수 부활 이후에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이 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17) 기도의 사람이다 (출17:11) : 그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18) 지도권을 위임한 사람이다 (출18:25-26) : 독불장군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하려면 능력이 한계를 느낄 뿐 아니라 사역에 크게 제한을 받는다. 모세는 모든 백성의 문제를 혼자서 책임지고 판단하느라 지쳤지만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받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되었다. 좋은 리더십은 일을 지혜롭게 위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한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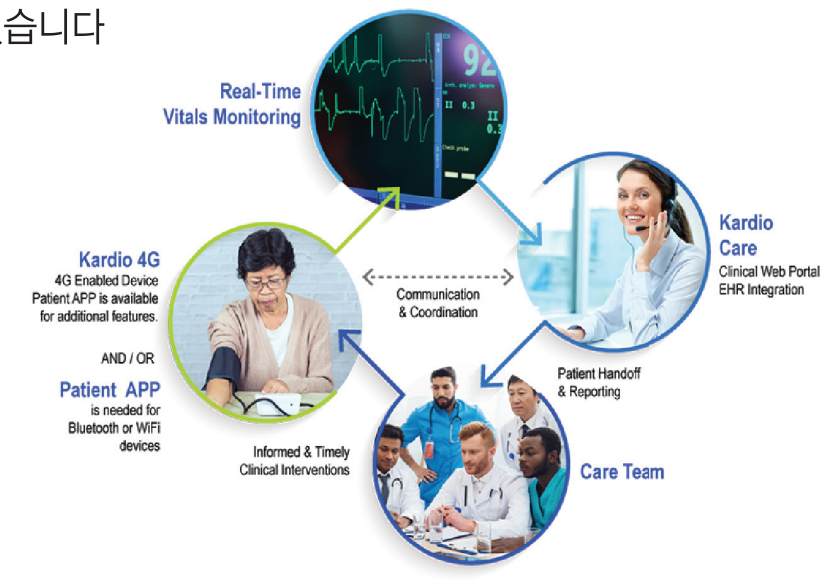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시니어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십니까?
제 주치의와 대면하지 않고도 바이탈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담당의료진은 해당 측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디오 원격진료(RPM - Remote Patient Monitoring)

- 시중에서 구입한 저가 혈압기나 혈당기는 이제 치우십시요! 전국 유명대학병원에서 사용중인 혈압기와 혈당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바이탈을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담당 의료진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주치의는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의사방문이 필요하거나 약처방을 변경한다던가, 응급실로 연결해야 하는지를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 바이탈이 정상밖으로 높거나 낮을때, 모니터링 담당자가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합니다
- 여행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어디서나 사용이 간편합니다
- 서비스의 사용료나 취소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기기는 무료 대여이며,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때에는 병원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카디오 상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디오 원격진료 서비스 Kardio Inc.
Tel) 714-494-1380 www.Kardio.Health email) Info@kardio.health

[2022년 신년 대담] '백 년 믿음' 김형석 교수 (下)

"신앙,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접점에"

'백 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103)는 윤동주 시인과 한 반에서 공부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 1985년 연세대 정년퇴직 후에도 강연과 집필로 여전히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김형석 교수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 자신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 등을 지난 1편에 이어 소개한다.

김형석 교수는 책에서 "믿음이란 경건하고도 엄숙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철학 서적을 주로 내시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뒤 신앙 관련 서적을 쓰셨지요.

"1962년에 예수님의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성지순례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습과 너무 반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교회 신부들이 그곳에 있는데, 신앙이랄 것은 없고 관광객에게서 돈 받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드리시던 감람산(올리브산)에 갔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을 리가 없으니 안 봐도 괜찮다고 했는데, 함께 갔던 스페인 사람이 자꾸 가자고 그래요.

돌담 안 거룩하게 꾸민 곳에 들어갔더니, 바윗돌이 이만큼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 발이 그렇게 컸을 리도 없고(웃음), 하여튼 가득 차 있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나 이쪽에는 국민 수준이 높으니 그런 건 없었어요.

며칠 다니고 떠나던 날 밤, 갈릴리 바닷가 옆 호텔 잔디밭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성지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모하다 왔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주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 속에 들어온 음성이 '너는 왜 날 여기 와서 찾느냐? 이곳은 내가 나고 자란 곳이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안의 고통받는 환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성지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에 왔구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이슬람교에는 뚜렷하게 성지가 있지요. 인도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슬람 사원 안에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있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6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지의 관념입니다. 불교에도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성지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 중 수가성에도 갔는데,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내 종교는 공간 종교가 아니다. 자연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때가 왔다'고 하는 역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지'라는 건 기독교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쓰신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의 개정판이 이번에 나온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두란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비슷한 기간에 세 권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봤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참고 자료 없이 사복음서를 읽으며 쓴 것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묵시록(계시록) 해석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말이 많아서 쓴 것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이상 이와우)〉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가 내게서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 그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 사회에서 사는 인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이 책들이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세 권 모두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설교하듯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하는 일들을 사회적인 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도 쓰셨습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을 강조하는 분들은 왠지 신앙이 약하고,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은 지성적인 부분이나 사회 개혁 등에 관심이 덜합니다. 둘 사이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성경을 읽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문학이란 역사, 문학, 철학 이 세가지인데, 이런 학문을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기보단 지성인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판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랬다면 먼저 마가복음과 마태·누가 복음에 기록이 있어야 할텐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긴 것은 아니지만, 요한의 후대에 은총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낀 후 소설을 쓰듯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적으로만 읽는 사람은 '발을 씻기신 건 아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이지만은 신앙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 제 발 좀 씻어 주실랍니까' 하면 '필요하면 씻겨주겠다'고 하셨으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 의미에서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가 나오면, 그게 또 신앙의 길이 됩니다.

성경은 상징적·의미적·체험적,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체험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 비유와 상징이 차지하고, 다음에 예수의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전에 동양철학 교수님이 오셨길래 성경을 읽어보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창세기를 쭉 읽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종교 경전이라기보다 역사 책이군요'라고 했습니다. 동양 경전에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만 나오는데, 구약을 읽어보니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다 역사이고, 다음에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다 역사이고, 다음에 사도들의 역사 기록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게 됩니다. 인문학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면, 신학보다 인간학에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는 신자들은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과만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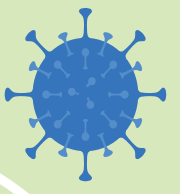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를 인간학적 위치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전통 신학적 위치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웅 기자

기독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이영훈 목사 "북한, 적화통일이 목표… 77년간 안 달라져"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신년하례예배 설교서 밝혀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영훈 목사는 17일 열린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총재 추대 및 신년하례예배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에스겔 37:15-17)'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는 1945년 해방 후 77년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며 "'7'이 두 번 있는 올해, 하나님께서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 목사는 "북한은 77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 적화통일이 목표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이라며 "우리 남한이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한국의 개화기를 열고 지금까지 중심을 지켜온 기독교가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10대 강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옛날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1882년 5월 22일 미국 슈펠트 제독과 우리 공사가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왔다. 올해가 한미수교 140주년"이라며 "조만식·안창호·이승만·김구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3.1운동은 2% 미만의 기독교인 주도로 일어났다. 전국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이 운동이 한국이 독립자주 국가로 살아있음을 온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 전쟁을 치러 가면서 공산주의와 싸워 이겨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그 찬란했던 기독교의 업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에도 진보 기독교가 얼마나 공헌했는가"라며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는 기독교 흔적이 다 지워졌다. '기독교는 한국 개화기에 교육 의료 사업에 공헌했다', 단 두 줄 나오는 교과서도 있더라"고 토로했다.

이 목사는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러브콜을 해도 무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기독교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과 노력, 계획으로도 이뤄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녘에 증거되어 다시 교회가 서고 기독교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져, 북한 2,500만 성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때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영훈 목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 관련 사업 업체가 2백 곳이 넘는다. 각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지만, 어느 단체도 문을 열지 못했다"며 "감사한 것은 2008년 남북정상회담 후 조용기 목사님께서 북한에 가서 남북 협력의 첫 단추로 평양심장병원 삽을 떴는데, 북한 천안함 폭침 이후 11년간 멈춰 있다가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정식으로 재개 허락이 났다. 2년 동안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 국무부 유엔 안보리 등 각계각층을 향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200여 대북 관련 단체들이 자신들이 업적을 내기 위해 뛰고 있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통일 문제만은 힘을 합쳐 하나 되어 귀한 역사를 이루자"며 "먼저 국내 탈북 자유시민 3만 5천 명에 대한 교회의 섬김이 원점에서부터 재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웅 기자

故 김동식 목사 피랍 22주기 "그 피 헛되지 않게 해야"

추모 및 국민촉구식 기념촬영 모습. ⓒ운동본부

휠체어 타고 장애인 돕던 목사
납치, 고문과 영양실조로 사망

故 김동식 목사 피랍 22주기 및 순교 21주기 추모, 납북자 송환 국민 촉구식이 16일 오후 요엘교회(담임 김영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추모예배, 2부 납북자 송환 국민촉구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식 목사는 22년 전인 지난 2000년 1월, 탈북민들을 돕다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에 의해 중국 연길에서 납치당했다. 이듬해인 2001년, 고문과 영양실조로 북한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2007년 봄 중국 S선교사가 가족들에게 전했다.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던 중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안타까워 그들을 돌보면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00년 1월 16일, 연길교회 인근 식당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차로 납치했다.

전언에 따르면, 김 목사를 납치한 북한 당국은 위협과 회유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의 전향과 탈북민들을 도운 과거를 회개하도록 강요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상 전향을 거부한 김 목사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80kg이던 몸무게가 35kg으로 줄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이듬해인 2001년 영양실조로 감옥에서 순교했다. 그는 북한 평양 근교 상원리 소재 조선인민군 91훈련소 위수구역 내에 안장됐다고 한다.

2부 국민촉구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는 "김동식 목사님이 피랍되고 순교하신 지 벌써 21년이 됐다"며 "2007년 사모이신 주양선 선교사님이 사무실을 방문해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생사 확인을 하고 싶고,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송환받고 싶다. 꼭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다 되어간다"고 전했다.

김규호 목사는 "긴 세월 동안 나름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소천하신 날을 몰라 피랍일에 거행하는 추모식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는 마음에 시작한 납북자 송환 촉구식도 12년째를 맞이했다"며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순교자를 잊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의 다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 바라건대 속히 통일의 날이 와서, 북녘 땅에 묻히신 목사님의 유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모사를 전한 고환규 목사(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대표)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며 휠체어를 탄 불편한 몸에도 열심으로 훈련받던 제자 김동식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오늘 우리는 그의 순교의 피가 북녘 땅을 적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규 목사는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며 "북녘 땅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욱 힘을 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순교자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로움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뱉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 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v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새 장소 이전"
E-mail: marhlaw@yahoo.com
모든상담 절대 비밀 보장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正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인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인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 434. 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전 11:15
사랑부 오전 8:45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성경적 결혼' 옹호하다 조사 받은 기독의원 "경찰에게 복음 가르쳐"

핀란드 전 기독민주당 의장인 페이비 레세넨 의원(사진에서 정중앙) ⓒ페이비 레세넨 페이스북

성경적 결혼관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핀란드의 기독 정치인이 경찰 조사 후 인터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초 핀란드 검찰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내용의 소책자를 저술한 페이비 레세넨(Päivi Räsänen) 의원을 동성애자 혐오 등 3가지 인종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레세넨은 2019년 라디오 쇼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최근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은 그녀는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심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레네센은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비영리 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 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과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더없는 특권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시간 동안 나는 경찰에게 복음의 메시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가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것이 그들 모두를 가치있게 하는 이유라고 말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다"라며 "마치 경찰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과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문을 받은 것이 "황당하고 충격적이었다며 마치 '소비에트 시대'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레세넨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의사로 일하던 중 목회자와 결혼했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핀란드 기독민주당 의장직을 역임했다.

레세넨은 "내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경찰을 관할할 때만 해도, 내가 경찰서에서 그런 심문과 질문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경찰이 그녀에게 자신이 쓴 글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녀는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고수할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 말하고 앞으로도 글을 쓸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이 아닌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표현이 "합법적이며 검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변호했다.

앞서 레세넨은 ADF 인터내셔널에 발표한 성명에서 "나의 종교적 신념을 내는 것이 투옥을 의미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나는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한 것에 대해 내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말은 모두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서한을 보내 핀란드 검찰과 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서한을 주도한 칩 로이(텍사스) 등 의원들은 미 국무부가 종교자유 침해 특별감시국을 선정할 때, 이러한 기소를 고려할 것을 USCIRF에 촉구했다.

또 지난해 5월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법학 교수들과 학자들도 레세넨과 포흐욜라 주교를 기소한 핀란드 검찰총장을 제재할 것을 USCIRF에 요청했다. 이어 7월에는 국제루터교회협의회(ILC)와 세계 루터교 주교와 회장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결혼과 성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고수한 기독교인을 기소한 핀란드 정부의 행동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 교인인 레세넨 의원은 3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레세넨 의원은 이달 24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텍사스 유대교 회당 인질극' 용의자, 노숙자라 속이고 진입

코로나 속 교회 예배 풍경 ⓒUnsplash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인질극을 벌인 용의자의 신상이 확인됐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인질범은 영국 국적의 멀리크 파이절 아크람(44)으로,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여성 과학자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람은 안식일 예배가 진행 중이던 '콩그리게이션 베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에 무장한 채 침입해,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망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노숙자라고 주장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질들은 모두 풀려나거나 구출됐다.

당시 예배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인질극은 접속해 있던 2만 6천여 명에 생중계됐다.

아크람은 지난 2021년 12월 말 뉴욕 공항으로 입국해 텍사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 댈러스 지부 책임자인 매슈 디사노는 아크람의 신원을 확인하며 "현재 이 인질극에 또 다른 이들이 관여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존 파이퍼 "복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한 도박" 일침

ⓒWaldemar Brandt/ Unsplash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가 도박을 시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파괴적"이라고 말하면서 복권에 대해 비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파이퍼 목사는 17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Desiring God Friday'에서 한 청취자로부터 '복권이 불우한 계층을 약탈한다고 말한 이전의 발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네소타주 '베들레햄 칼리지 & 신학교 총장'인 파이퍼는 복권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빨리 부자가 되려고 애쓰게 만든다"라며 "불우한 사람들은 종종 복권에 연 수입의 6% 이상을 갖다 바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승부 게임 등의 복권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에게는 덜 매력적이다. 은행 계좌에 10달러나 100달러를 추가하는 것은 중산층에게 그다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며 "빈곤층에는 10달러, 100달러, 500달러 등은 횡재와도 같다. 따라서 지불금이 더 자주 발생하고 무승부 확률이 높을수록, 이런 게임에 더 많은 빈곤층이 몰린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은 많은 당첨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백만 달러 산업은 되지 못했다"면서 복권이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 수입의 일부를 도박 중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할애하며, 일부 주는 복권을 남용하는 습관과 정반대의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퍼는 "중독적인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흔하며, 만족을 미루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에 의해 사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도박은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습관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파이퍼는 '복권을 하는 것이 잘못된 7가지 이유'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복권이 "영적 자살행위"이자 "일종의 횡령"이며 "멍청한 심부름", "대부분이 손해 보는 구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착취"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니 당첨이 되더라도, 복권 당첨금을 우리 사역에 기부하지 말아 달라.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의 등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다"라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크게 만족함으로써,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탐욕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재정 사역인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 CEO인 척 벤틀리도 복권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2019년 CP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우연에 의존하여 충족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며 "대부분에게 있어, 복권에 대한 투자 수익은 인쇄된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돈을 결코 도박에 허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보다 운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운과 우연에 맡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토니 에반스 목사 "백신은 필요, 접종 의무화는 반대"

토니 에반스 목사 ⓒ유투브 채널 캡처

미국의 저명한 흑인 목회자가 코로나 백신이 중증 입원을 예방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댈러스 오클리프성경협회(Oak Cliff Bible Fellowship) 설립자이자 담임 목사인 토니 에반스는 9일 주일 설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이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방식"이라고 전했다.

에반스는 "이러한 변종은 단순한 변종들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료과학, 정치인 및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라며 그분은 "너희가 무엇이라 생각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말하노니, 내가 지금 말하노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다 왕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다고 기록된 역대하 16장 12절을 인용하며 "계속해서 그는 의사를 찾아 다녔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거부했고 끝내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행하신다면 (중략) 백신이 도움이 된다. 백신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준다"라며 "자연 면역이든 치료법이든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당신의 몸에 화학 물질을 넣는 일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는 원하는대로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문제는 백신 접종 반대가 아닌 의무화에 대한 반대이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에반스는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해 상황은 계속 바뀌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에반스는 "로마서 14장 전체는 여러분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포함한)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바울은 23절에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했다"라며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편안한 가운데 결정해야지, 의무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주일예배 오후1:00
EM 오후 1:30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캐나다 유명 목회자, '전환 치료 금지법' 거부

"미성년자에게 해 되는 치료 보호…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

팀 스테판 목사. ⓒ페어뷰침례교회 유튜브 캡쳐

캐나다의 유명 목사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 치료'를 금지한 새로운 법률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에 따르면, 캘거리에 위치한 페어뷰침례교회(Fairview Baptist Church)의 팀 스테판(Tim Stephens) 목사는 "우리는 절대 누구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전파할 것이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에 입각한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환치료를 금지한 캐나다의 새 법안(Bill C-4)은 해당 용어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특정 형태의 성경적인 상담뿐 아니라 성경적 성에 관한 설교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전환치료를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자로 바꾸거나, 개인의 성 정체성을 시스젠더(cisgender: 트랜스젠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의미 -편집자 주)로 바꾸기 위해 고안된 실습, 치료 또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또 "'이성애, 시스젠더 성 정체성,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성에 부합하는 성별 표현'이 '다른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보다 선호된다'는 신념은 '신화'"라고 한다.

스테판 목사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을 거부해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법으로 다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판 목사는 "이 법은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한다. 성경적 세계관을 금지하면서, 미성년자에게 '해가 되는' 치료는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완전히 후진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린이의 사춘기를 막기 위해 호르몬 차단제를 사용하는 등 해로운 약물의 사용을 권장한다. 게다가 이 법은 유방이나 기타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장려한다"며 "그들은 성경적 견해에 입각할 때 실제로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스테판 목사는 또 이 법이 특정 개인(원치 않는 성적 욕망을 가진 개인)이 성경적 상담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금지하고 반대쪽으로의 전환은 권장하고 있다. 그가 동의하더라도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적어도 캐나다 법은 특정인들에 대한 회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타난 지도자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던 말을 인용했다.

강혜진 기자

인도 힌두교인 200여 명, 예배 현장 급습… 목사와 성도 병원행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칸다말 지역의 재건된 교회에서 만나고 있다. 2008년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교회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됐다. ⓒJohn Fredricks

인도 동부 차티스가르주에서 힌두 민족주의 군중 200여 명이 가정교회 예배 현장을 급습해, 목사를 포함해 최소 2명이 다치고 기독교인 여성들이 강제 개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의 박해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ICC)는 최근 산지스 응으로 알려진 남성을 비롯한 힌두교인 무리들이 차티스가르 콘다가온의 오다간 마을에 위치한 교회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ICC는 "산지스 응은 예배가 진행 중인 가정 집을 급습해, 헤만스 칸다판 목사와 샹카르 살람 성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사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폭도들은 "힌두교를 기독교로 불법 개종시키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마을에서 기도를 계속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위협했다. 칸다판 목사와 살람을 비롯한 성도들은 이들의 공격으로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칸다판 목사는 "거의 9시간 동안 가택 연금됐으며, 심지어 경찰 앞에서도 폭도들에게 계속 학대를 당했다"고 고발했다.

이 밖에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비슈와 힌두 파리지아드(세계힌두평의회) 지도자들은 10일 선데리 바티라는 이름의 기독교인 여성을 강제로 힌두교 종교 의식에 참석시키고, 개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칸다판 목사는 "마을 상황이 여전히 긴박하다"며 "마을을 탈출한 우리 가족 5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회가 위치한 콘다가온 지역은 부족들이 많은 곳으로, 2020년 급진주의 힌두교 단체들이 부족이나 토착민들의 기독교 개종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후 기독교인 부족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다양한 종교적 관습과 숭배의 대상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인구조사에서 이들을 모두 힌두교인으로 간주한다.

2020년 9월, 부족들은 3차례에 걸쳐 같은 부족의 기독교인들의 가옥 16채를 파손했으며, 이 마을의 기독교인 여성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 밀림으로 피신했었다.

인도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는 2.3%, 힌두교인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수표종교인들에 대한 급진적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공격은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바라티야 자나타당이 집권한 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더욱 증가하고 극렬해졌다.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거의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도 오픈도어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들이 힌두교인이어야 하며, 인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들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한다. 특히 힌두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표적이다. 힌두 기독교인들은 '외국인 신앙'을 따르며, 공동체에 불행을 가져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보고서는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2021년은 인도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 최소 486건의 기독교 박해 폭력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LA office/Showroom 오픈기념 세일
리모델링 전문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2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견적상담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세초부터 세말까지

신명기 11: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과 시내 산 언약을 정리하여 전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비참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의 멍에와 채찍에서 해방시키실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고 4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군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이런 고생스런 길을 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노릇하며 그들의 먹던 것을 조금이나마 얻어먹던 때가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을 선동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했습니다. 모세를 훼방한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1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6:24에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 하노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28-33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중략)…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도 삼키워질까 두려워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거짓 제사장들도 하늘의 불이 내려 소멸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각심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셨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신앙의 영향이 미칠까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광야생활 속에서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중략)…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목자는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훼방하고 원망, 불평하며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정리를 하실 것입니다.

성은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훼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중에는 밤중에 와서 훼방했던 한 목수는 자다가 즉사했고 공동수도를 관리사업하던 사람이 예배당 건축중 물이 모자라 수돗물로 시멘트 반죽을 하기위해 돈을 주며 수돗물을 사용하려 했으나 교회에는 수돗물을 팔지 않겠다고 방해를 했던 여자도 그해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남긴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붙들어 쓰시기 위함이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목도한 너희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신11:7-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귀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깊은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그 같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쓰실만한 믿음의 사람, 곧 마음에 드는 이꾼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된 신앙심과 투철한 사명의지를 인정받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 세초부터 세말까지 크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AZUSA PACIFIC UNIVERSITY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강준민 칼럼

좋은 습관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습관의 힘은 대단합니다. 오비디우스는 "습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미래를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좋은 습관을 지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됩니다. 또한 나쁜 습관은 오래 지속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형성함으로 나쁜 습관을 서서히 소멸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관은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습관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알고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셨고 또한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거듭 성경을 암송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마 4:4, 7, 10).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시 1:2-3).

둘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눅 22:39).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두드러진 습관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예수님은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눅 6:12).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눅 22:44).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히 5:7).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비밀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순위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긴급한 일의 노예가 되어 살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에 노예가 될 때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괴테는 "하찮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정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은 일곱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행 6:4).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행 6:7).

넷째, 예수님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목적 지향적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에 집중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다섯째,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형성해야 할 소중한 습관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입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충성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4:31-32).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마 25:21).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25:40). 예수님에게 배운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형성하도록 합시다. 습관은 작은 것을 반복하고 그 횟수를 늘려 가므로 형성됩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시길 빕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나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듣다가 " 그래. 소라도 잡아먹고 살아야 고난의 행군을 할 것 아니냐!"며 대들었다. 마음 같아선 "맞다. 네 말대로 나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를 잡았다. 이 나라에 내려진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작업반원 모두가 줄줄이 끌려와 나와 같은 신세가 될 게 빤했다. 그들은 다시 계속해서 나를 조롱했다.

"사회주의 혁명도 오늘날 고난의 행군도 소를 잡아먹은 너희들이 힘을 내어 다 완수하거라!"

취조반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취조할 이유가 없었기에 심문을 하루만에 종결했다. 나는 차라리 그들의 조롱과 멸시에서 풀려난 것이 좋았다. 그런데 감방에 돌아오니 같은 방을 쓰는 녀석이 또 조롱하는 것이다. 그 역시 소를 잡아먹었다가 끌려온 처지였다.

"야, 성님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네다. 어쩌면 황소를 잡아서 고기 한 점 먹어 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생겼으니 참 불행한 인생이오. 아니다. 목숨을 담보로 황소를 잡아서 굶어 죽게 생긴 작업반원들을 살려 냈으니 애국자다. 야! 성님의 그 불타는 애국정신은 후세에 천년만년 길이길이 남아 전해질 겁네다. 참 사람이 살아도 성님처럼 후세에 길이 남을 애국정신을 발휘하고 꼴까닥 해야 하는데 이놈은 혼자서 소 한 마리 다 처먹고 죽게 생겼으니 영광스럽다 할까 불명예스럽다고 할까? 성님, 갈피를 잡지 못하겠수다."

안 그래도 취조반에게 시달리다 왔는데 또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날렸다. 이 일로 그도 나도 철창에 매달려 계호원(간수)들에게 얼마나 매를 얻어맞았는지 모른다. 얼굴과 온몸에 핏자국이 얼룩덜룩 맺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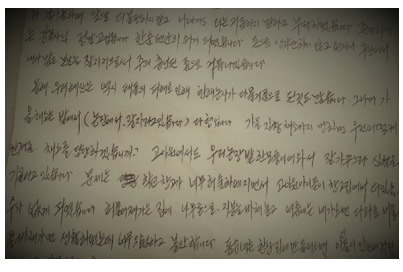
그런 뒤에도 녀석은 멈추지 않고 나를 놀려 댔다. 가만히 내버려두자니 부아가 치밀고, 손을 보자니 계호원들이 이리 떼처럼 달려들어 온몸에 장백산 줄기를 그어댈 테니, 정말이지 괴로웠다. 내가 대꾸가 없으면 놀려대다가도 그만둘 일인데, 이 녀석은 그러든가 말든가 쉴 새 없이 입을 놀렸고, 그러다 계호원에 걸려 죽도록 얻어맞기를 반복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일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지하숙소복원과 북녘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 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숱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I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대면예배의 은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0일 동안 두 겹의 문 안에서 격리되어 은둔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1월 1일 토요일 밤부터 주일 이후 특새가 이어졌고, 신년부흥성회가 있어서 하루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부흥성회 때는 강사가 계셨지만, 담임목사의 부담감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일을 지내고는 타코마 부흥회를 준비 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 비행기 표 웹 체크인까지 마치고, 9일 만에 집에 가서 짐을 싸려고 하는 순간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부흥성회를 할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 확진 결과가 지금 나왔기에 성회를 연기할 수 있느냐는 전화였습니다. 사실 저도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인지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참에 저도 결과가 바로 나오는 PCR 검사를 했더니 양성 확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분들은 키트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저 혼자서 바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텅 빈 성전에서 영상녹화를 할 때와 마지막 PCR 검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꼼짝없이 좁은 방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1일 밤부터 하루도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일 화요일 밤에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받았고, 예배 전 키트검사로 한 번 더 음성을 확인한 후 19일 수요저녁예배 때부터 대면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중보기도하며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의 격려와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보석 같은 감동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홀로 있는 격리의 시간 동안 한 번의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면서,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 또 한 번 온 몸으로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부르는 찬양과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이 달랐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와 성전에서 부르짖는 합심기도는 더더욱 달랐습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내 몸과 세포가 주는 느낌과 확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격리 9일째 목회협력위원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 확산의 때에 더 조심하고 주의는 기울여야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의 중단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중략)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듯 일어나 빛을 발할 때는 환하고 밝은 때가 아니라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미크론보다 크십니다. 어떤 것도 합력 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 이십니다.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만이 사망을 가져오는 육체의 생각을 이기고 Not I But Christ!의 삶을 이루게 함을 믿고,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체휼(體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작년만 해도 이런 기도 부탁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하루걸러 이 기도 요청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본인의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자기와 한배를 탔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동병상련이랄까요? 당연히 목사로서 기도 부탁한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지만,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니,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자는 아픈 사람이고, 곤경에 처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라면, 아픔과 어려움도 남보다 더 겪었으면 비슷한 형편의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신학교 시절, 차가 없어서 선배에게 라이드를 얻어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동기생이 있었는데 차가 없어서 학교를 걸어 다니던 전도사였습니다. 차를 몰고 학교 가던 분들이 아무리 빵빵거리며 타라고 손짓해도 사양하면서 유유히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며 걸어 다녔던 동기였습니다. 그때 한 후배가 한국에서 유학을 오자마자 새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1980년대, 신학생이 새 차를 탄다는 사실에 '아멘' 할 수 없었던 당시, 그 후배가 나에게 다가와, 선배님, 힘드시죠?' 라고 하는데 전혀 위로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차 없는 동기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걸어 다니는 것이 낭만처럼 느껴질 정도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 동기생의 걷는 모습에 반한 한 공대 출신 자매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 등록금도 도와주고, 결국 결혼하여 사모로서 동기생의 목회를 빵빵하게 후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감동을 주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하소연 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empathize)'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 4:15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동정'으로 번역했는데 못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은 동정(sympathy)이 나온 뿌리지만, 의미는 체휼이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동정의 의미가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체휼은 같은 일을 겪어봤기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을 체휼하신 주님이시기에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듯이, 코로나 걸린 성도들을 위해 겪어봤기에 드릴 수 있는 체휼의 기도로 더욱 무릎 꿇겠습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ge \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흡연자 Rate 월 보험료/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담임목사 청빙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2001년 6월에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 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이민목회 경험자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www.tgsc.org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21일

제출처: rsong1010@gmail.com

기타
-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청빙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2531 W. 237th St. Torrance, CA90505

담임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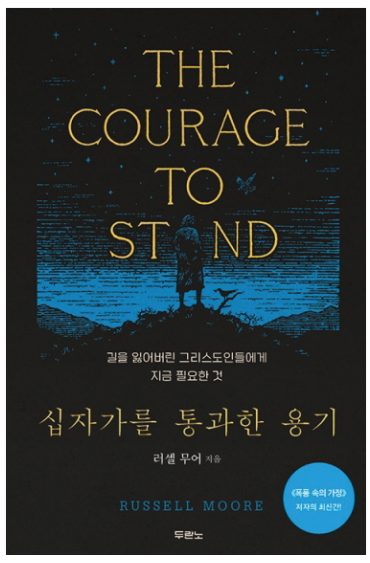
1. 교회(소개)
   1) 이름: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Antioch Church of Las Vegas)
   2) 주소: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39 (702-749-9929)
   3) 현 소속교단: 해외 한인장로회 (KPCA)
   4) 교회 홈페이지: www.omychurch.org
2. 지원자격
   1) 미국 KPCA(해외한인장로교회)교단에 가입된 분이거나 가입할수 있는 분으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2) 이민 목회 경력이 5년 이상 되시는 분(부목사 포함)
   3)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3.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포함, 최근본인 사진과 가족사진 첨부)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 (동영상 또는 YouTube 링크)
   4) 최종 사역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 주소
   5) 목사 2인 추천서 (추천인 연락처 기재요망 또는 추천인이 이메일로 직접제출)
   6) 목회 비전과 계획
4. 제출방법
   1) 이메일: myungcho09@gmail.com
   2) 제출기한: 2022년 2월 15일
   3) 설교를 제외한 모든파일은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5) 서류 심사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6)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경우, 청빙 결정후에도 취소될수 있습니다.
   7) 최종 후보자는 원본제출을 요구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위에있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러셀 무어 교수 저서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러셀 무어 | 정성묵 역
두란노 | 304쪽

수치심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심판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것이다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용기가 아닌 십자가가 빚은 용기가 필요하다. 엘리야처럼 절망의 밑바닥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확신의 자리, 온전함의 자리, 연합의 자리, 정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저자 러셀 무어 교수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보여 주고자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수치심 앞에서 △깨어짐 앞에서 △약함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불의 앞에서 △실패 앞에서의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약함 앞에서’가 눈길을 이끈다.

저자는 “엘리야는 요단을 통해 호렙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 여정 내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물과 음식을 공급받으며 사십 주야 동안 걸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최소한 굶지는 않았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할 정도로 극도의 굶주림을 겪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음식을 공급받았다”라며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공급하심을 통해 엘리야가 아합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그분이 바알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깨우쳐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비와 농작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신으로 여겼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번영을 위한 우상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통해서도 엘리야와 똑같은 ‘힘’이 나올 수 있다. 엘리야가 가진 것은 기도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공급과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처럼 엘리야도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는 하나님이 수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반응에 의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행동은 신을 조종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수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었다면 엘리야가 죽여 달라고 하소연했을 때 바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번영 복음’은 다단계 사기나 다름없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꾼들은 역사적인 기독교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많은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너무 절박하지 않거나 잘 속지 않는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 더 큰 반감을 갖게 되며, 먹잇감이 된 이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라며 “또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죄된 성향이 존재한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히 행한 일이 모두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한탄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힘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회복되어야만 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저자는 이어 “언젠가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게 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심장 박동을 보여 주는 침대 옆 보니터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밖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성경이 밝혀주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은 따분해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재들에 열을 올린다. 이는 세상이 인정해 주는 종류의 힘에 열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강하면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힘은 지배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으려면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마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용기로 가는 길은 두려움을 통한다. 힘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 우상처럼 되며, 결국 모든 우상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겁이 난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하며, 쩍 벌린 입이나 꽉 쥔 주먹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고 찢어진 몸과 흘린 피로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된 것이다. 자기보호와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된 뒤에야 비로소 진리 안에 설 수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우리의 두려움은 엘리야의 두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우리 중에 적을 쓸어버리기 위해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업삳.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으 ‘승리’를 이루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적이 되기는커녕 더없이 약해진다. 바알이 이기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나는 믿는다

두란노서원이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의 신간 〈나는 믿는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사도긴경의 유래부터 그리스도인이로서 추구해야 할 믿음의 도리들을 찬찬히 풀어가며 믿음의 진보, 영적 성숙을 향한 권면의 말들을 담아내며 그간 크리스천들이 홀대했던, 때로 암기하듯 반복했던 사도신경의 구절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영적 위기의 시간을 이겨낼 믿음의 가치를 재발견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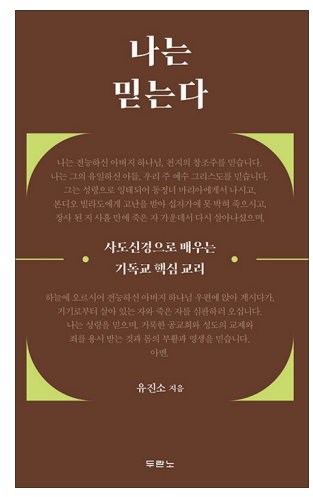
유진소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상상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이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동시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 영적 바이러스의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된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신천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진 채 교회에 몰래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소식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게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인데 이에 대해 내린 결론은 신천지라는 영적 바이러스가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면역력이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면역력이 약한 이유는 교회가 교리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초대 교회 이후 이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견고한 교리를 통해 이단의 공격을 이겨내며 교회를 지키고 세워왔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중추가 되었다. 이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강해했다. 이유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조와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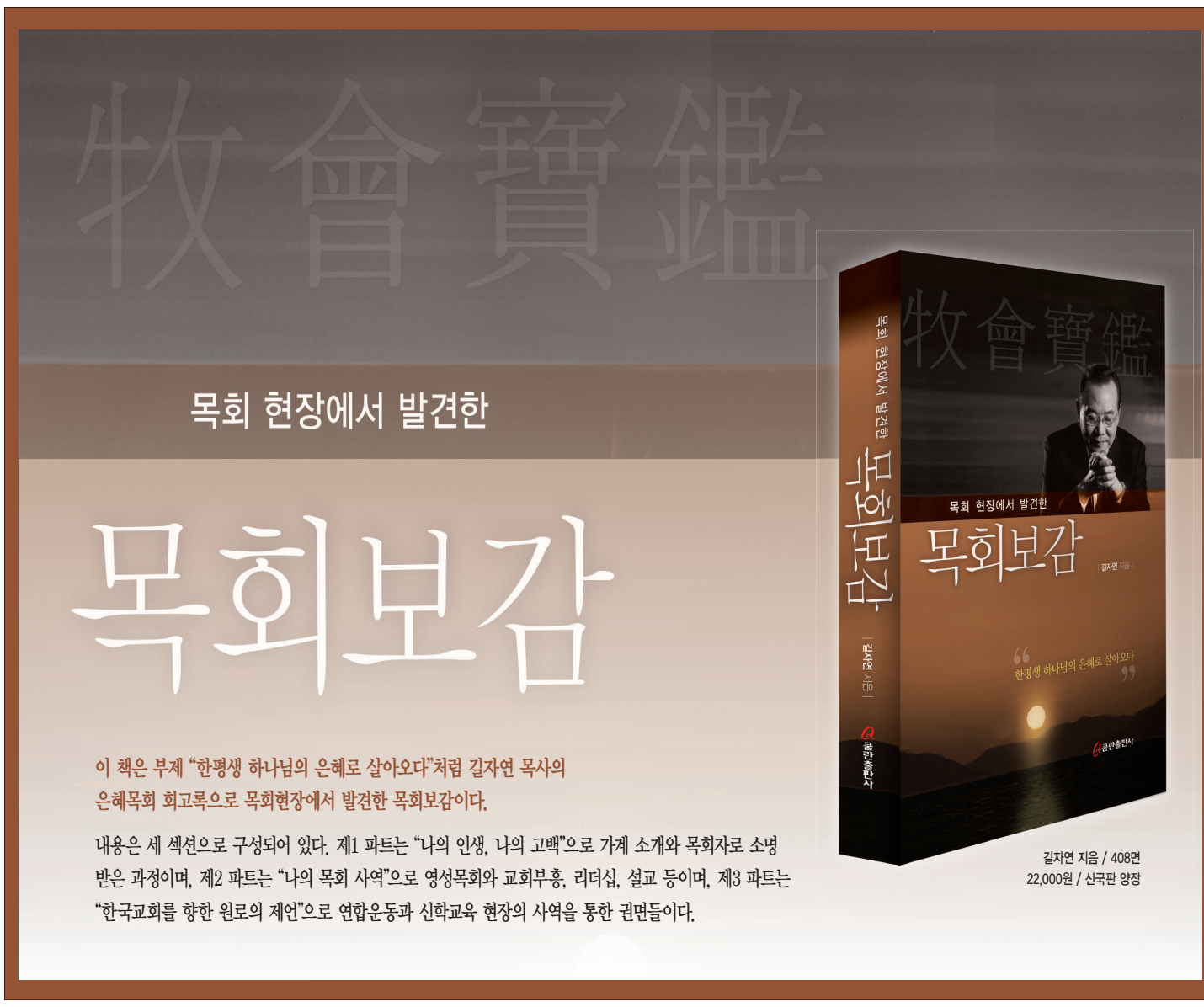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연구하고 강해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주신 강렬한 감동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가 들어갈 것을 대언하여 명령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군대가 되었던 환상이 바로 사도신경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었다”라고 했다.

끝으로 유 목사는 “사도신경에 대해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고백, 곧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고 선포되는 순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 성도가 살아나고 약한 대적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던



그 살아있는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라는 강력한 감동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나를 흔들었다. 그런 에스골 골짜기의 역사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덕연(德延) 길자연 목사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가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숱한 질곡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북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랑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뱁티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길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길자연 지음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대)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하우스 오브 구찌〉 (1)

성경, 명품 브랜드로 과하게 치장하는 것 금하는 이유

명품을 둘러싼 허영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실제 품질보다 한없이 부풀린 값어치 인정
물질적 풍요로 인간의 영혼 살릴 수 없으며
곤궁과 비참 은폐해 구원 갈망 멀어지게 해

구찌 가문의 비극적 실화를 다룬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허영의 아이러니: 구찌 가문의 흥망과 비극

금주 개봉하는 〈하우스 오브 구찌〉는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기업 구찌의 창업 가문에서 벌어진 비극적 가족사를 다룬 실화 기반 영화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발생한 마우리치오 구찌 살인사건을 주된 서사로 다루고 있다.

해외에서는 작년 11월 개봉된 〈하우스 오브 구찌〉는 영화적 각색을 최소화하고, 실제 구찌 가문의 가족사와 살인사건을 충실히 재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레이디 가가, 아담 드라이버, 알 파치노, 제레미 아이언스, 자레드 레토, 셀마 헤이엑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구찌 가문은 명품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구찌를 설립한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 가문이다. 1921년 창업주 구찌오 구찌(Guccio Gucci, 1881-1953)에 의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설립되었다.

창업주 구찌오는 16세의 나이에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면서, 상류층 고객들의 고급 가방과 의복을 보며 패션 감각을 익혔다.

5년 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온 그는 가죽 공방에서 가방과 피혁 악세서리 등을 만들며 기술을 연마한 뒤, 1921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매장을 열었다.

이후 구찌오의 장남 알도 구찌(Aldo Gucci, 1905-1990)가 대단한 경영 수완을 발휘한 덕에 구찌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세계 패션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알도가 이끌던 2세 경영 시대까지 건재했던 구찌의 브랜드 가치는 1983년 3세 경영 시대로 넘어가면서 급락하기 시작한다.

당시 구찌오의 차남 로돌프 구찌의 아들 마우리치오 구찌가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가문 내 지분 및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와 재정난이 심화되었다.

결국 마우리치오는 1993년 투자회사 인베스트코프에 1억 7천만 달러(약 2000억원)를 받고 자신의 지분 전체를 넘겼다. 이후 구찌 브랜드는 유능한 패션 디자이너 톰 포드가 주도하여 다시금 세계적인 명품 지위를 회복한다.

그러나 구찌 가문의 고난은 경영권 상실로만 끝나지 않았다. 마우리치오가 1995년 밀라노의 자택 앞에서 전처인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의 사주를 받은 남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살인을 청부한 이유는 이혼 시 위자료(14억 원)에 대한 불만과 마우리치오에 의해 버려졌다는 박탈감 때문으로 밝혀졌다.

가난한 세탁소 주인의 딸로 태어난 파트리치아는 마우리치오와의 결혼 후 재벌가 회장 부인으로 변모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으나, 그녀의 심한 허영심과 의부증에 지친 마우리치오가 1991년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이후 마우리치오가 1995년 재혼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파트리치아가 증오심에 살해를 사주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아이러니한 비극이었는데,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부와 명성을 획득한 가문이 바로 그 허영심으로 인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

구찌 가문의 제품은 고객들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패션 감각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파트리치아는 이런 과시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고, 그녀로 인해 구찌 가문은 커다란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가문의 부와 명성을 지탱해주던 무기가 역으로 가문에 불행을 가져다준 것이다.

◈허영의 심리학: 소속감과 존경 욕구 이면의 어두운 실상

명품에 대한 소비 욕망은 기본적으로 허영심에서 기인한다. 단이 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허영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들보다 비싼 것을 가졌다는 우월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명품 소비의 동기가 순전히 이런 말초적 허영심일 뿐이라면, 명품 소비가 그토록 활성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남들보다 비싼 것을 갖지 않고도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부자나 능력자들도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명품 소비를 부추기는 데는 좀 더 심층적인 허영의 논리가 존재한다. 허영심이란, 기본적으로 실재가 아닌 가상을 활용하려는 마음이다.

남들이 나를 본래의 나보다 더 낫게 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자신의 존재적 실재를 가리면서까지 자신을 온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포장하려는 마음이 허영심의 보다 심층적인 특성이다.

지금은 심리학 분야에서 화석화된 고전 이론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대중에게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여타 사회과학 분과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5단계)을 따르자면, 명품 소비를 부추기는 욕구는 3단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와 4단계 '존경의 욕구' 두 단계에 모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일정한 사회적 성취를 이룬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이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제품의 실제적 가치보다 몇 배는 비싼 가격에 패션이나 자동차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력의 과시를 방편삼아 소속감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통속적인 규격에 맞춰 대상화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 내어놓아야만 한다. 이는 자기 삶의 실재 전반을 가리운 채 오로지 일부분만 조작된 이미지로 만들어 제시하는 일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미숙하고 고독하며 저열한 실상은 감추고, 오로지 재능이 넘치고 사교적이며 고상한 면만 드러내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다.

명품은 바로 이런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편이다. 그래서 실제 제품 품질보다 한없이 부풀려진 값어치를 인정받는다.

그러고 보면 명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보다, 소속감과 인정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얻는 효용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초지일관 명품을 통해 얻는 효용과 이미지 조성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잠언, 복음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등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과하게 사치스러운 옷과 장식물로 치장하는 일을 금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가르침(눅 12:15-21)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치스러운 치장이 인간 자신의 영혼의 처지 및 실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그 곤궁함과 비참함을 은폐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악과 계명을 어긴 뒤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된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죄상을 감추고자 했던 것처럼(창 3:7-11), 인간은 자기 삶의 어둡고 초라하고 퇴락한 측면을 화려하고 비싼 옷으로 감추려 한다. 명품 브랜드들은 바로 인간의 이런 정신적 약점을 공략해 커다란 이익을 챙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릴리 재단으로부터 백만 불 그랜트 수상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릴리 재단(Lilly Foundation)이 후원하는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 2차 프로젝트에 프로포즐을 제출, 채택되어 100만 불 그랜트를 수상했습니다.

100만불 그랜트 수상

프로포즐 제목 Culturally Competent Pastoral Leader Project
수상 금액 $999,198
프로젝트 실행 기간 2022 - 2026년
향후 5년 중점 프로젝트

01 한어권 사역자와 영어권 사역자의 목회 파트너십과 리더십 함양 교육
02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03 다문화 현장이 요구하는 실제적 이중언어 교육
04 문화적 소통 능력이 탁월한 차세대 목회 리더 양성 교육
05 선교적 리더십으로 문화 장벽을 극복하게 하는 신학 교육

202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위 과정

학부(B.A.) 과정
- 신학(Theology)
- 사회복지학(Social Work)
- 국제경영학(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가정상담학(Family Counseling)

석사(M.A.) 과정
- 목회학(Divinity)
- 목회학 원목 집중 과정(Divinity in Professional Chaplaincy)
-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

박사(Doctorate) 과정
- 선교학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 선교학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개강일 | 1월 24일

수업 방식 |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최적화한 다양한 수업 방식

- 온캠퍼스 수업(On-campus learning)
- CANVAS 기반 온라인수업(CANVAS based online learning)
  (CANVAS: 북미 유수대학교가 사용하는 Online Learning Management Platform)
- 실시간 화상수업(Synchronous online learning)
- 온, 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수업(Blended learning)

장학 및 학자금 지원

- 20여 종류의 장학금
- 주정부 학비지원(Cal Grant)
- 연방정부 학비지원(Pell Grant)
- 현역 및 퇴역군인 학비지원

자격 및 인준

가주교육국(BPPE)
기독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유학생 I-20 발행

입학 상담 Tel. 562.926.1023

- **학부 과정** 이명철 학장 (ext. 308 | mclee@ptsa.edu)
- **목회학 석사 과정** 김루빈 처장 (ext. 303 | rbkim@ptsa.edu)
- **상담학 석사 과정** 김경준 디렉터 (ext. 310 | wisp3457@ptsa.edu)
- **선교학 석/박사 과정** 신춘식 디렉터 (ext. 309 | doctor@ptsa.edu)

입학 지원 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office@ptsa.edu**로
연락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562-926-1023 | Fax 562-926-1025 | www.ptsa.edu